

보도시점 2023.11. 26.(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3. 11. 24.(금)

## 전기차 충전 편의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얼라이언스(협약체) 출범 첫 공식활동

- 충전기 기술개발, 충전 및 통신 서비스, 충전기 시험·인증, 해외 진출 지원,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 얼라이언스(협약체) 첫 번째 간담회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7일 오후 코리어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기차 충전 얼라이언스(협약체)’ 출범 이후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 11월 14일에 출범한 ‘전기차 충전 얼라이언스(협약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2023년 6월 29일)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에 따라 충전시설 확충뿐 아니라 관련 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이 얼라이언스(협약체)에는 충전기 제작·운영사업자 76개사(전국 충전기의 96.1% 운영), 정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이 참여했다.

얼라이언스(협약체)는 △충전기 제작·설치 및 기술개발, △충전통신 및 서비스, △충전기 시험·인증, △표준 및 세계화(글로벌) 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 주제를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전기 인증 개선 및 수출지원,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방안, △충전기 주요 부품 품질개선 및 규제 개선 등 산업계 지원방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아울러 얼라이언스(협약체) 구성 및 운영 방향을 비롯해 최근 전기차 충전 시설과 관련된 충전사업자 및 전기차 사용자의 건의사항 등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차 충전 얼라이언스(협의체)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충전기기 제조 및 설치, 기술개발, 인증, 수출지원 등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사업자 사이에 더욱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환경부도 전기차 충전 편의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회 전기차 충전 얼라이언스(협의체) 간담회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수석전문관	김경미 (044-201-6897)



## 붙임

# 제1회 전기차 충전 얼라이언스(협의체) 간담회

### □ 추진 배경

- 얼라이언스 구축 배경 공유 및 세부 운영 방안 등 논의  
※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관련 현안 과제, 규제 개선 사항, 산업계 지원방안 등

### □ 개요

- (時·所) '23. 11. 27(월) 14:00~15:30,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서울)
- (참석) 환경부, 얼라이언스, 환경공단, 자동차환경협회 등 100여명
- 발표 및 논의 안건
  - ① 전기차 충전기 인증 개선 및 수출지원  
※ 충전통신규약(Ocpp) 개선안, 국내·외 인증 인정 및 지원 방안
  - ②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 인프라 구축 방안
  - ③ 충전기 주요 부품 품질개선, 규제개선 등 산업계 지원  
※ 전력변환기(파워모듈) 품질개선,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개선,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등
  - ④ 얼라이언스 분과 구성·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등

###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5분	· 행사 안내	
14:05~14:10	5분	· 인사 말씀	환경부
14:10~14:25	15분	· 전기차 충전기 인증 개선 및 수출지원	KTC
14:25~14:40	15분	·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 인프라 구축 방안	한국전기연구원
14:40~14:55	15분	· 주요 부품 품질개선, 규제개선 등 지원 계획	한국환경공단
14:55~15:25	30분	· 얼라이언스 구성·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등 토의	참석자 전체
15:25~15:30	5분	· 정리 및 폐회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